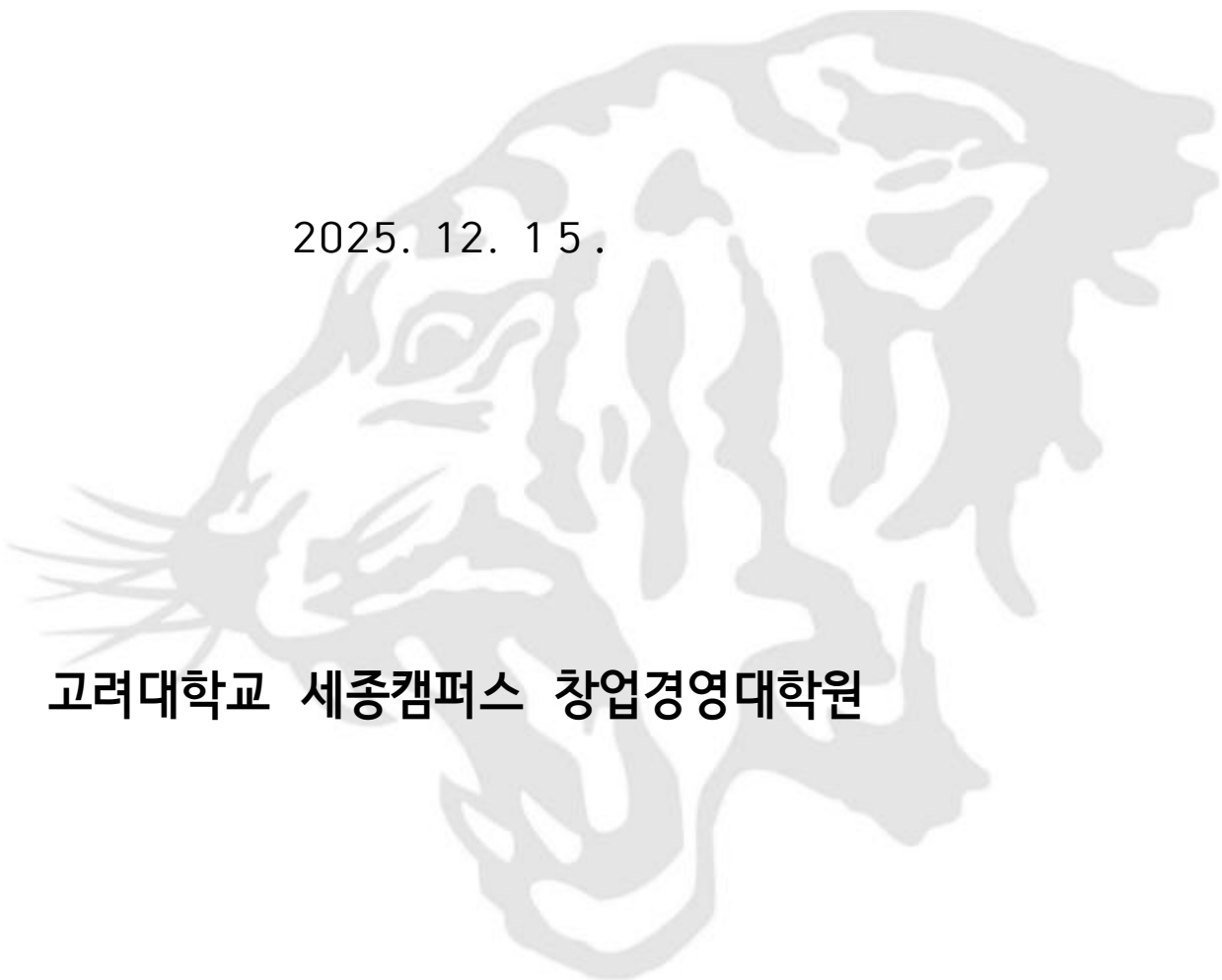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창업경영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2025. 12. 15.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창업경영대학원



목 차

I. 자체평가 추진 개요	- 1
1. 자체평가 시행 근거	- 1
2. 자체평가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3
3. 자체평가 내용	- 3
4. 자체평가 프로세스	- 5
II. 대학원 개황	- 6
1. 일반현황	- 7
2. 연혁	- 7
3. 기구	- 9
III. 자체평가 결과	- 10
1. 주요 지표 현황	- 11
2. 개선 계획 추진 결과	- 16
IV. 종합의견	- 17
1. 주요 성과	- 18
2. 개선 필요 사항	- 18
3. 향후 개선 계획	- 18

제 I 장 자체평가 추진 개요

1. 자체평가 시행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이하 생략>

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자체평가의 실시)

-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 「세종캠퍼스 대학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의 시기)

- ①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 「세종캠퍼스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대학종합평가’라 함은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영역별로 분석·평가·연구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하 “본교”라 함)의 문제를 자체 진단·규명하고 그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② ‘단과대학평가’라 함은 본교 단과대학(부)의 공통 사항과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대학원평가’라 함은 본교 각 일반·전문·특수 대학원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공통 사항과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위원회 구성)

- ①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장은 세종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 다. 위원은 세종부총장이 임명하며 학장, 기획처장 및 대학본부 관련 처장으로 함. 이 경우 각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관련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학부 장), 전임교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자체평가위원회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 다. 위원은 세종부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부처장 및 본교 전임교직원으로 함
-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함

3. 자체평가실무위원회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함
-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함

<이하 생략>

2. 자체평가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가.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평가 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창업경영대학원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본 대학원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자 함.

나. 창업경영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경쟁 대학원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본 대학원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기본방향

- ① 자체평가는 창업경영대학원을 대상으로 함.
- ② 객관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대학 정보공시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3. 자체평가 내용

가. 정량지표

1) 평가 방법

본 대학원과 인근 지역의 주요 대학 특수대학원과 비교 분석함.

2) 비교 대학원 선정이유

대전·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경영대학원으로서 본 대학원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본 대학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원임.

본 대학원	비교 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구 경영정보대학원)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우리 대학원과 비교 대학원 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중 아래의 지표를 평가 지표로 선정함.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중도 포기율
-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정원 내·외)

나. 정성지표

1)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창업학 교육 강화

최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과 협업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출현으로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 2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성이 중요했고, 3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성이 중요했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즉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모험적 기업이 정신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과 기업이 정신 관련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본 대학원의 교육 내용이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외국인 교육 강화

최근 대학 교육 환경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대학원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가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 대학원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정원 외 외국인 신입생을 공식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 학생 유치는 교육 다양성 확대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과의 상호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오프라인 수업 기반의 맞춤형 강의 제공, 다국어 학사 안내, 한국기업 기업탐방, 학습 지원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학업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 기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대학원이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삼고자 함.

4. 자체평가 프로세스

가. 자체평가의 주기

- 2년에 1회 평가

나. 위원회 구성

구분	직 위	성명
위원장	창업경영대학원장	정규언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경영관리 전공 주임	나병수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경영정보 전공 주임	김재영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국제경영 전공 주임	이건봉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조직관리 전공 주임	최석봉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회계금융 전공 주임	오광욱
위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 전공 주임	유재현
간사	글로벌비즈니스대학·창업경영대학원 행정팀 차장	이윤정

다. 위원회의 역할

-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 설정
- 자체평가 실시, 평가 결과 분석
- 평가 과정 및 적절한 시행 여부 점검
- 환류 체계 적용

제 II 장 대학원 개황

1. 일반 현황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유형	사립
학생 수		교직원 수	
재적생 수	재학생 수	교원	직원
156명	144명	41명	4명
재정 현황		학과 및 전공 수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	학과	전공
55,142,000원	80,571,000원	2개	6개

2. 주요연혁

시 기		주요 내용
1988년	8월	문교부에 지역사회개발 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10월	문교부로부터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인가 식사과정 6개 전공(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노동정책, 경영관리, 기술개발 및 동아시아) 정원60명
	11월	초대 대학원장에 전병훈(경영학과 교수) 취임
1989년	3월	대학원장에 전병훈(경영학과 교수) 연임 대학원 개원 및 식사과정 20명 입학
1990년	3월	3개 전공(정보관리, 회계재무, 노사관계) 신설과 동시 정원 60명에서 90명으로 증원
	11월	지역사회개발대학원을 경영정보대학원으로 개칭
1992년	10월	대학원장에 전병훈(경영학과 교수) 연임
1994년	3월	동아시아, 기술개발, 지역사회개발, 노동정책전공을 마케팅, 경영과학, 국제경영, 국제금융으로 각각 변경인가
	6월	제3대 대학원장에 김홍양(응용통계학과 교수) 취임
1995년	11월	최고관리과정 신설 인가
1996년	3월	최고관리과정 제1기 개설
	4월	공공정책전공, 전산정보시스템전공, 경제정책전공 신설 마케팅전공, 경영과학전공, 국제금융전공은 폐지
	6월	제4대 대학원장에 한영대(경제학과 교수) 취임
	11월	식사과정 총정원 90명에서 입학정원 36명으로 정원변경

1998년	2월	제5대 대학원장에 표시열(행정학과 교수) 취임
	3월	행정대학원의 신설인가와 함께 공공정책전공 모집을 행정대학원으로 이관
	12월	사회복지전공은 인문정보대학원으로 이관
1999년	1월	사회복지전공, 공공정책전공, 경제정책전공 폐지 식사과정 정원은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
	3월	제6대 대학원장에 김영규(무역학과 교수) 취임
	11월	식사과정 정원 38명에서 68명으로 증원
	12월	정보관리전공은 경영정보전공으로, 노사관계전공은 인사조직전공으로 전공명칭변경
2000년	3월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경영품질최고경영자(AMQP) 과정 제1기 과정 개설(연 2회 개설)
	8월	제7대 대학원장에 김문석(경영학과 교수) 취임
2001년	4월	제8대 대학원장 윤훈현(경영학과 교수) 취임
2003년	4월	제9대 대학원장 정균화(경영학과 교수) 취임
2004년	3월	대학원통합학칙 및 경영정보대학원시행세칙 제정
	11월	식사과정 정원 68명에서 60명으로 감원
2005년	4월	제10대 대학원장 최윤재(경제학과 교수) 취임
2007년	2월	제11대 대학원장 박진성(경영학부 교수) 취임
	3월	인사조직전공을 조직관리전공으로 명칭 변경
2008년	9월	식사과정 모집단위 경영학 . 전산정보시스템전공으로 변경 경영학전공자는 3학기 진입 전 세부전공 선택
2009년	2월	제 12대 대학원장 김원년(경제학과 교수) 취임
2011년	2월	제 13대 대학원장 류문찬(경영학부 교수) 취임
2013년	2월	제 14대 대학원장 강병구(경영학부 교수) 취임
2015년	2월	제 15대 대학원장 이충열(경제학과 교수) 취임
2016년	3월	경영정보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9월	식사과정 정원 60명에서 54명으로 정원 변경
2017년	3월	제 16대 대학원장 이병락(경영학부 교수) 취임
	9월	경영정보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19년	3월	제 17대 대학원장 박종찬(경영학부 교수) 취임 경영정보대학원
2020년	9월	경영정보대학원 창업학과 창업전공 신설
2021년	3월	제 18대 대학원장 구상희(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취임
2021년	9월	경영정보대학원을 창업경영대학원으로 개칭
2023년	3월	제 19대 대학원장 김랑혜운(글로벌학부 영미학전공 교수) 취임
2023년	9월	창업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24년	9월	창업경영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모집 시작
2024년	9월	창업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25년	3월	제 20대 대학원장 정규언(글로벌경영전공 교수) 취임
2025년	3월	창업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25년	9월	창업경영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3. 기구표

가. 석사학위과정

전공 명	학위명	주임교수
경영관리	경영학석사(경영관리)	나병수
경영정보	경영학석사(경영정보)	김재영
국제경영	경영학석사(국제경영)	이건봉
조직관리	경영학석사(조직관리)	최석봉
회계금융	경영학석사(회계금융)	오광욱
창업	창업학석사(창업)	유재현

나. 창업경영대학원 행정팀

직 위	담 당 업 무	성명
차장	교원인사, 업무총괄	이윤정
직원	연구, 서무, 집회	이성실
직원	창업경영대학원	권성우
직원	창업경영대학원	강인솔

제 Ⅲ 장 자체평가 결과

1. 주요 지표 현황

가. 지표별 분석

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표. 최근 3년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44.9	44.9	36.5
충남대 경영대학원	34	34	27.7
충북대 경영대학원	23.8	23.8	21.6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0	0	42.5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9.3	29.3	38.1

최근 3년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2023년 44.9%에서 2024년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 36.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비교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또한 충남대 경영대학원(34% → 27.7%), 충북대 경영대학원(23.8% → 21.6%)이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임교원 구조 및 과목 운영 방식의 공통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29.3% → 38.1%) 및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0% → 42.5%)은 2025년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하락한 주된 요인은 창업분야 신규 교과목 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충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창업학 관련 교과목 증가에 따라 겸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동일 유형 타 대학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2025년 기준 본 대학원 36.5%, 충남대 27.7%, 충북대 21.6%). 이는 최근 일시적 상승을 보인 단국대·한남대와 비교하더라도 3개년 평균 강의담당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본 대학원은 창업교육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충원 계획 및 전공 간 교수 배치 조정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부 평가 지표와 연계되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임교원 확보 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2) 신입생 충원율

<표.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79.6	87.0	71.4
충남대 경영대학원	100	100	98.9
충북대 경영대학원	73.6	58.6	78.2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28.3	35	69.6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72.7	76.7	51.7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본 대학원의 충원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87.0%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71.4%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 일시적으로 충원율이 상승한 것은 창업 분야 교육 수요 증가 및 모집시기·홍보 전략 개선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2025년 충원율 감소는 전년도 대비 지원자 수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비교 대학원과의 충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대 경영대학원은 3년간 100% 내외의 높은 충원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2025년 98.9%), 충북대의 경우 2024년 일시적으로 58.6%까지 하락하였으나 2025년 78.2%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은 2024년 76.7%에서 2025년 51.7%로 크게 감소하여 큰 변동폭을 보였으며,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은 2023년 28.3%에서 2025년 69.6%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이와 비교할 때 본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타 대학원 대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나타내는 점은 등록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큰 틀에서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충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전임교원 확충, 교과목 다양화, 체계적 홍보 강화 및 지원자 유입 경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최근 3년간 전공 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

연도	충원율(%)	전공	전공별 충원율(%)
2023	79.6	경영학	32.7
		창업	46.9
2024	87.0	경영학	43.5
		창업	43.5
2025	71.4	경영학	24.5
		창업	46.9

3) 중도포기율

<표. 최근 3년간 중도포기율(%)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8.33	5.2	7.1
충남대 경영대학원	7.32	3	5.2
충북대 경영대학원	10.78	6.3	7.1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3.75	6	0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4.03	3.6	4.9

최근 3년간 중도포기율을 분석한 결과, 본 대학원의 중도포기율은 **2023년 8.33%, 2024년 5.2%, 2025년 7.1%**로 나타남. 3년간 타 대학원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중도포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교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지난 3년간 충북대, 단국대 등과 유사한 범위로 수렴한 것으로 나타남.

전공별 중도포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도포기 사유는 대부분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 후 미복학)’과 ‘개인사정에 따른 자퇴’로 확인됨. 연도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2023년

경영학전공 4명, 창업전공 2명이 모두 휴학 후 미복학에 따른 휴학경과제적으로 중도포기
→ 업무 부담 증가, 학업 병행 어려움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2024년

창업전공에서 4명(휴학경과제적·자퇴 혼합), 회계금융전공·경영학전공·경영관리전공 각각 1명씩 발생

→ 창업전공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 전공별 교과경험 및 교육만족도의 편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전체 중도포기율 5.2%는 낮은 편임.

◆ 2025년

경영관리전공 1명, 회계금융전공 1명은 휴학경과제적 발생

창업전공 2명은 개인사정에 따른 자퇴

→ 2024년에 비해 창업전공의 중도포기자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공 내 이탈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대학원의 중도포기율은 특정 전공에 이탈자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전공규모의 구조적 특성과 직장 병행 대학원생 비중이 높은 학습자 특성이 중도포기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창업전공의 경우 학업 부담, 실무 병행의 어려움 등이 일부 학생들의 포기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중도포기율 안정화를 위하여 직장인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과정 탄력 운영, 전공 내 학습지원 확대 및 만족도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최근 3년간 전공별 중도포기율(%) 현황>

연도	전공	인원	사유
2025	경영관리전공	1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창업전공	2	자퇴(개인사정)
	회계금융전공	1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2024	회계금융전공	1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창업전공	4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 자퇴(개인사정)
	경영학전공	1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경영관리전공	1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2023	경영학전공	4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창업전공	2	휴학경과제적(업무상 휴학후 미복학)

3) 재학생 충원을

<표.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려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86.2	81.1	118.9
충남대 경영대학원	93.5	99.5	98.9

충북대 경영대학원	80.9	72.6	69.9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	60.8	60.8	57.2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95.3	77.9	72.5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본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2023년 86.2%에서 2024년 81.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18.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의 감소는 전년도 대비 중도포기자의 증가 및 졸업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는 동일 기간 충원율이 감소한 충북대·단국대의 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반면 2025년에 재학생 충원율이 118.9%까지 증가한 것은 2024년 2학기부터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됨. 정원 외 국제학생 입학이 증가하면서 전체 재학생 수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재학생 충원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비교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충남대 경영대학원은 3년 연속 98~100% 수준의 안정적인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북대와 단국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남대학교 미래인재대학원은 60%대에서 큰 변동 없이 정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이와 비교하였을 때, 본 대학원의 2025년 충원율 증가는 타 대학원 대비 뚜렷하게 높은 수치로, 국제학생 선발 확대 정책이 충원율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해석됨. 다만, 외국인 학생의 비중 증가가 장기적으로 학사관리·교육지원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본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나, 2024년의 일시적 하락과 전공별 중도포기율 변동을 고려할 때 중도이탈 관리, 신입생 충원율 제고, 국제학생 학사지원 강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총괄표

정량지표	자료 기준일	연도별 현황(공시기준)			증감 추이
		2023	2024	2025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4.9	44.9	36.5	2023~2024 보합 후 2025년에 감소(전반적 감소 추세).
신입생 충원율		79.6	87.0	71.4	2024년에 소폭 증가 후 2025년에 감소
중도포기율		8.33	5.2	7.1	안정적인 증감추이.
재학생 충원율		86.2	81.1	118.9	2024년 소폭 감소 후 2025년에 크게 증가

다. 감소/증가 지표 원인 분석

지표명	내용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감소	- 2023년과 2024년에는 44.9%로 동일했으나, 2025년에는 36.5%로 하락함. - 이는 창업학 전공 교과목 확대에 비해 전임교원 충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임교원 강의 배정 비중이 감소한 데 기인함. - 또한 창업분야 신규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었으나 전임교원의 전공별 배치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외래·겸임교원 강의를 증가하여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신입생 충원율 감소(2025년)	- 2023년 79.6%에서 2024년 87.0%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71.4%로 다시 감소함. - 이는 2024학년도 대비 창업학 분야 지원자 감소가 발생하였고, 타 대학원 대비 등록금 부담이 지원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중도포기율 안정	- 최근 3년간 중도포기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본 대학원의 중도포기율(2023년 8.33% → 2024년 5.2% → 2025년 7.1%)은 비교대학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대·단국대 등 비교대학원 역시 직장인 비중이 높은 교육과정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3년간 중도포기율이 5~10% 범위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본 대학원의 지표가 이들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직장인 대학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패턴과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재학생 충원율 증가(2025년)	- 재학생 충원율은 2023년 86.2%, 2024년 81.1%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18.9%로 크게 증가함. - 이 증가는 2024년 2학기부터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학생 수가 확대된 영향이 주요 요인임. - 특히 외국인 입학생의 지속적 증가가 전체 재학생 규모를 늘려 충원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정원 내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정원 외 학생

	편입이 충원을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

라. 정성지표

1)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영학 세부전공 통합 및 심화전공제 운영

본 대학원은 산업 환경 변화와 학습자 구성의 다양성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분화된 경영학 전공체계를 통합형 전공 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화전공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학습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함.

① 경영학 세부전공의 통합 운영

기존 경영학 전공은 경영관리, 조직관리, 회계금융 등 세부전공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전공별 원생 수 편차가 커 교과목 개설 및 학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속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학전공을 단일화 및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원생 규모에 따른 전공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과목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목표하고 있음.

전공통합을 통해 교수 배치, 교과 운영, 학생 지원 서비스 등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이 목표임.

② 심화전공제도 도입을 통한 학습 선택권 확대

전공체계 통합 후, 학생 개별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심화전공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통합된 경영학 전공의 공통 기반을 학습한 뒤, 필요에 따라 조직관리, 경영관리 등 세부 분야를 선택적으로 심화할 수 있게 되어 학습 효율이 제고됨.

특히, 직장인 학습자 중심의 원생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전공 구분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학습자 편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남.

③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과체계 재정비

전공 통합 이후, 교과과정 전반을 재정비하여, 중복 교과목을 정리하고 실무 중심 교과목을 강화하려고 함.

이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경영학 핵심 역량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수업 선택 과정에서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확보하려고 함.

종합적으로, 본 대학원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학 전공체계를 단순화하고, 심화전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려고 함.

2)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모집 체계 구축 및 확대

본 대학원은 글로벌 학습 수요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사구조 다변화 및 원생 구성을 국제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① 2024-2학기부터 창업학전공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선발 시작

본 대학원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학전공을 대상으로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대학원의 외국인 모집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음.

창업학 분야에 대한 해외 학습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공 특성(창업 실무·비즈니스 전략 등)에 맞춘 국제 수요 기반의 교육 운영이 가능해졌음.

정원 외 국제학생 유입을 통해 재학생 충원을 제고 및 학사운영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② 정원 외 외국인 학생 수요 확대 → 2026-1학기 경영학전공까지 모집 확대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의 지원·입학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창업학전공뿐 아니라 경영학전공의 정원 외 외국인 모집도 신규로 실시함.

전공 통합 이후의 교육과정 정비 및 심화전공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경영학전공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확보함.

이러한 모집 확대는 학사운영의 다양성 확보, 국제화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가져옴.

③ 정원 외 외국인 학생 학사지원 체계 마련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모집 확대에 따라, 대학원은 2024~2025년 동안 입시·학사·등록 지원 절차를 정비하였음.

비자 발급, 수강 지도, 출석 관리 등 외국인 학습자 특성에 맞춘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학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종합적으로, 본 대학원은 2024-2학기부터 정원 외 외국인 모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경영학전공까지 모집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사 운영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평가됨.

2. 개선 계획 추진 결과

2023년 자체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별 추진 결과

가. 경영학 세부전공을 통합하여 효율성 개선

본 대학원은 2023년 자체평가에서 제시된 ‘전공 구조의 효율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경영학 관련 세부전공을 통합 전공체계로 전환할 예정임.

세분화된 전공 구조로 인해 발생하던 학생 수 불균형, 교과 개설의 어려움, 학사행정 비효율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통합 전공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 전공 도입과 더불어 오퍼레이션즈 어널리틱스, 모티베이션 세미나 등 산업 수요 기반의 신규 경영학 교과목 개설을 완료하였음.

이를 통하여 통합된 경영학 전공 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전공 경쟁력 또한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나. 창업학 교원 충원

본 대학원은 2023년 자체평가에서 제시된 ‘창업학 교원 확충’ 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학생 충원 증가 및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비전임교원을 추가 채용하였음.

특히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창업·경영 실무 전문가를 겸임교원으로 충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의 지식을 학습하고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였음.

이로써 창업학 교육의 실무성·현장성이 강화되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다. 창업학 전공 과목의 다양화 및 전임 개설 비율 개선

본 대학원은 창업학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교과목을 개발·개설하였음. 주요 개설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5월: 〈디지털플랫폼과 창업〉, 〈ESG경영〉 신규 개설

2025년 2월: 〈디지털혁신과 창업〉 신규 개설

2025년 7월: 〈창업실무론Ⅱ〉 신규 개설

2025년 12월: 〈스타트업마케팅〉, 〈벤처창업론〉 신규 개설

위와 같은 지속적인 교과목 확충을 통하여 창업학 전공 교과목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른 세분화된 학습이 가능해졌음. 더불어 창업학 전공의 개설 과목 수 증가로 인해 교육과정 내 선택 기반이 강화되었고, 전임·비전임 교원의 교과 배분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음.

제Ⅳ장 종합 의견

1. 주요성과

① 외국인과정의 신설과 확대

- 2024년 2학기에 창업전공 정원 외 외국인과정을 신설하여 15명이 입학하였으며, 2025년 1학기 27명, 2025년 2학기 38명으로 입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2026년 1학기에는 경영학전공 정원 외 외국인과정을 신설하여 62명을 1차로 선발하였음.

② 정량지표의 안정적 관리 및 일부 지표의 개선 성과

- 최근 3개년 자료 분석 결과, 본 대학원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포기율 등 주요 지표에서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5년 재학생 충원율이 118.9%로 크게 증가한 것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정원 외 외국인 선발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결과로 평가됨. 이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학습자 구성의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임.

③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공개편 추진 및 교육과정 혁신

- 본 대학원은 산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학 세부전공을 통합하고 심화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오퍼레이션즈 어널리틱스, 모티베이션 세미나 등 신규 경영학 교과목 개설을 완료하여 교육과정의 질과 선택폭을 확대함.

④ 창업학 중심 교육 강화 및 교원 확충 통한 실무교육 강화

- 2025학년도에는 창업학 분야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전임교원을 추가 채용하고, 산업현장 경험을 가진 겸임교원을 확충하여 실무 중심 창업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음.

⑤ 창업학 전공 교과 다양화 성과

- 2024~2025년 동안 ‘디지털플랫폼과 창업’, ‘ESG경영’, ‘디지털혁신과 창업’, ‘창업실무론Ⅱ’, ‘스타트업마케팅’, ‘벤처창업론’ 등을 연속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창업학 교육과정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음.

종합적으로, 본 대학원은 산업 환경 변화 대응, 교육과정 혁신, 학생구성 다변화, 실무교육 기반 강화 등에서 뚜렷한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개선 필요 사항

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의 지속적 관리 필요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2023~2024년 44.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36.5%로 하락하였음. 창업교과목 확대에 비해 전임교원 충원이 다소 부족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임교원 확보 계획 강화가 필요함.

② 국제학생 확대에 따른 학사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모집이 본격화되면서 재학생 규모는 증가했으나, 이에 맞춘 비자·출석·수강지도 등 행정지원 체계의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함.

3. 향후 개선 계획

① 경영학 전공체계의 통합 운영 및 심화전공제 정착

-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공 통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정비를 지속하고 신규 교과목 확대를 추진함. 통합 전공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선택권을 높이는 심화전공제도를 강화할 계획임.

② 전임교원 확충과 강의 배분 최적화 추진

- 창업학·경영학 분야 신규 교과 증가에 맞추어 전임교원 충원 및 전공 간 배분 조정을 추진하여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제고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함.

③ 국제학생 모집 기반의 체계적 확대

- 2024-2학기 창업전공을 시작으로, 2026-1학기에는 경영학전공까지 정원 외 외국인 모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함. 이에 따라 학사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문화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병행함.

④ 창업학 전공의 교과목 다양화 및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2024~2025년에 신규 개설된 창업학 교과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창업학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성을 강화함.

⑤ 학사운영의 안정화 및 중도포기율 감소 노력

- 직장인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수강제도·학습상담·복학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중도포기율을 5% 이하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종합의견 최종 정리

본 대학원은 최근 3개년 동안 전공 구조 개편, 국제학생 확대, 창업학 강화, 실무 중심 교육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재학생 충원을 개선, 교육과정 다양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다만 신입생 충원을 전임교원 확보·중도포기율 관리 등 일부 지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본 대학원의 중기적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학원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 품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① 전공 통합을 통한 교육구조 효율화
- ② 창업·경영 전문교육 강화
- ③ 국제화 기반 확립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 ④ 학습자 지원 체계 고도화